



SK인천석유화학 전경

SK인천석유화학의 복잡한 지역현안 해결법은 지역 공유인프라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한다

최근 사회공헌활동에서 '콜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가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다.

마이클 포터와 함께 CSV(Creating Shared Value) 개념을 도입한 마크 크래머가 2011년 발표한 개념으로, 복잡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는 기부나 봉사를 넘어 실질적인 사회문제 해결에까지 사회공헌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세계적 초콜릿 회사 MARS가 지역 정부와 주민, 현지 NGO와 협력해 원 재료를 공급받는 코트디부아르 농가 지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한 것이 대표적 '콜렉티브 임팩트'의 사례다.

이들은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자의 역량과 자산을 공유하여 선진농법을 전수하고, 농부들의 영양 및 건강보호, 도로건설 등을 통해 면적당 수확량을 3배 이상 늘리는 효과적인 개선을 이뤄낼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사례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공유인프라를 활용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주요 경영 화두로 제시하는 SK그룹이 눈에 띈다.

'공유인프라'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유무형 자산과 역량을 상호 공유하고 협력하여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종전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NEW SK'를 선포하면서 '공유인프라'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인천의 대표 에너지·화학 기업인 SK인천석유화학 또한 이 같은 그룹의 철학에 따라 지역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공유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지역의 사회문제를 개별회사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더욱 발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친환경 냉난방 에너지 공급

SK인천석유화학과 지역 집단에너지사, 인천시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 냉·난방 열원공급' 사업은 공유인프라를 활용한 사회적 가치 창출의 대표적 사례다.

이는 SK인천석유화학 생산공정의 열에너지와 집단에너지사의 열배관망

9월 5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지역 냉·난방 열원공급' 업무 협약 체결식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다섯 번째부터 인천시 허중식 정무경제부시장, SK인천석유화학 최남규 사장, 인천종합에너지 이태형 대표, 청라에너지 조영대 대표



네트워크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연계해 인천 지역 대규모 주거단지에 냉난방 열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 공급 규모는 연간 약 28만 Gcal로(37MW급 복합화력발전소 생산량) 일반가정 4만 세대가 1년 동안 사용 가능한 양이다.

그간 인천 지역은 송도, 청라, 가정지구 등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으로 인해 냉난방 열원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더욱 안정적인 열원 확보가 필요했다.

이에 SK인천석유화학은 공정 변경을 통해 양질의 열원을 지속해서 공급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집단에너지사와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열원만큼 기존 발전소 가동을 줄일 경우 연간 약 2만7천톤의 LNG 또는 5만6천톤의 유연탄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연간 약 5만톤의 온실가스 및 100t의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통해 대기환경 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등 지역 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 '발달장애 아동 희망 키움 스포츠교실' 협약 체결 후 최남규 사장(뒷줄 왼쪽에서 4번째) 등 9개 기관/단체 대표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지역 미래 인재 적극 육성

SK인천석유화학의 또 다른 노력은 바로 미래 인재 육성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기 위한 취지로, 단순 기부를 넘어 공유인프라를 통한 다양한 '교육특화 사회공헌 혁신모델'을 개발해 실천하는 구조다.

그 대표적 프로그램 중 하나가 인천서구드림스타트, 인천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 한국 부모교육연구원, 재능대와 함께 힘 모아 마련한 '사람책 멘토링'이다.

중요로 만들어진 책이 아닌, '사람'이 책이 되어 다양한 삶의 경험을 아이들과 대화를 통해 나누면서 경험을 배우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성공한 스토리가 있는 명사와 심리전문가, 대학생들이 멘토로 나서 아이들의 꿈을 비롯해 학부모들의 성장을 도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시 서구가 '최우수' 드림스타트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지역 중학생들의 진로설계와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해 연세대, 서구청과 함께 '연세대 중학생 멘토링'을 운영 중이다.

이 밖에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하는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인천상공회의소 및 지역기업들과 함께 인천 대학생들의 취업컨설팅과 미래를 응원하는 '아름다운 서당'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발달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문화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 프로그램인 '발달장애 아동 대상 희망키움 스포츠교실'은 전국 최초로 인천 지역 연고 3개 프로스포츠 구단(SK와이브스, 인천유나이티드FC, 신한 에스버드 여자농구단)과 공공기관, 복지기관, 대학 등 총 9개 기관/단체가 함께 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발달장애 아동들의 생태감수성 향상과 자연과의 교감을 목적으로 한 '환경 생태 숲 체험교실'은 지역의 환경단체, 발달장애 전문기관과 협력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이 또한 지역 최초의 사례다.



2017년 5월 인천시청에서 열린 '환경안전분야 리스크 거버넌스 구축' 협약식에서 최남규 사장(왼쪽에서 3번째) 등 13개 기관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상생 실천

SK인천석유화학은 2016년 'SK인근지역주민협의회'와 주거환경, 교육·인재육성, 문화·복지, 안전·환경 등 4대 분야에 총 300억원을 지원하는 '지역 상생방안 협약'을 체결하고 실천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 대표 봄축제로 자리 잡은 'SK벚꽃축제'는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가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고 있다.

매년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사내에 있는 벚꽃 동산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해 낭만적인 봄의 향연을 만끽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인천시 안전정책과가 진행한 '재난안전전시회 및 체험존'을 비롯해 서부소방서와 보건소, 차매센터 등 11개 관공서가 벚꽃동산 내에 생활캠페인 부스를 열고 VR지진체험, 심폐소생술, 혈당측정, 차매검사 같은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2016년 시작한 '사랑나눔 김장대축제'도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함께하는

대표적인 지역상생 사회공헌활동이다.

그동안 지역 내 기업과 단체 등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김장 행사를 한 날, 한자리에 모여 진행함으로써 수혜 가구의 중복 지원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더 좋은 재료의 김장 김치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에는 서구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공항철도 주식회사, 신한은행, 한국가스공사 등 11개 기업 및 단체와 8개의 자원봉사단체가 함께 행사에 참여했다.

이 행사를 통해 지역 소외계층 1천710가구 및 32개 복지시설이 총 1천 830박스의 김장 김치를 전달받았다.

최우선시하는 안전보건환경

SK인천석유화학은 회사경영에 있어 '안전보건환경(SHE)'을 최우선시한다. 지난해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안전분야 리스크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에 참여해 회사가 가진 자산과 역량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민간·산·학이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재난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재난안전피해 확산 방지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협력 모델이다.

또 최근에는 인천 서구, 인하대, 인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 지역본부와 함께 지역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환경·안전 교육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현실적 조건상 체계적인 교육과 투자가 어려운 지역 영세사업장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해 환경·안전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일조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SK인천석유화학 협력사를 대상으로 6차례 시범 운영됐고, 향후 보원을 거쳐 인천 전 지역의 중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SK인천석유화학 최남규 사장은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야 지속 가능하고,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도 창출해야 한다"며 "회사와 지역의 각 주체가 보유한 인프라 및 역량을 활발히 공유해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사회공헌 혁신모델을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❶



1



2

1 SK구성원 자원봉사자가 SK행복나눔 벚꽃축제를 찾은 홀몸 어르신들을 모시고 벚꽃 동산을 둘러보고 있다. 2 서구 사랑나눔 김장 대축제에 참가한 SK구성원들